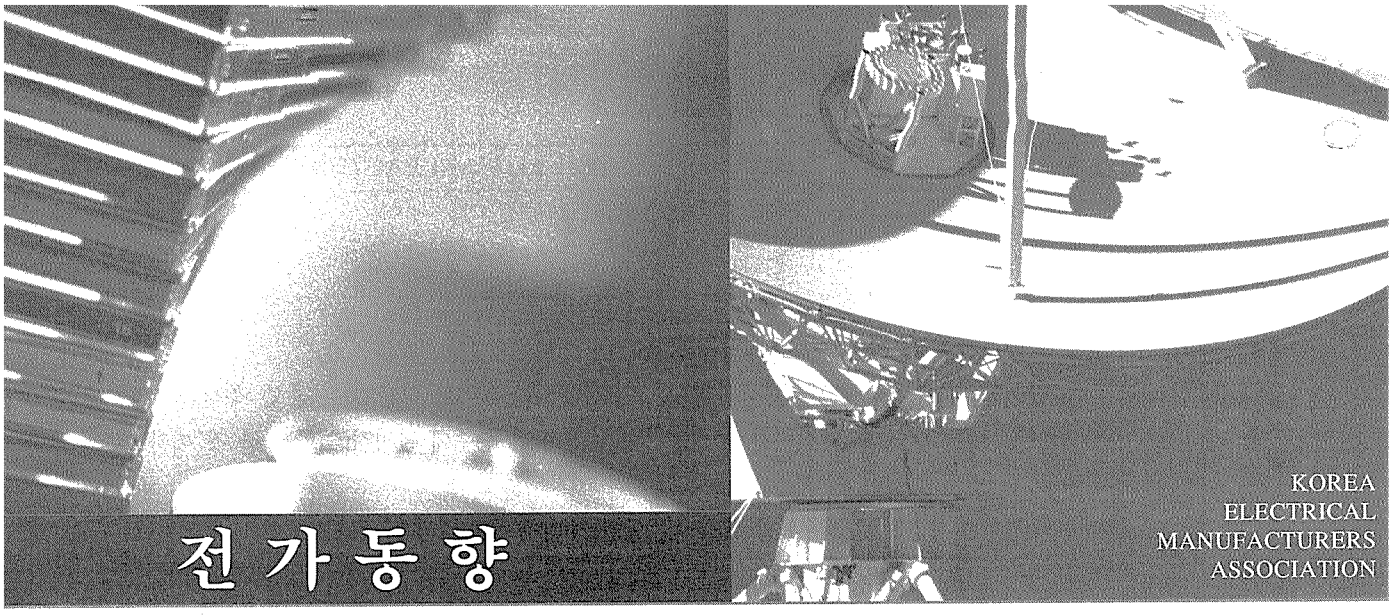


## 154kV 신진천~성거T/L 건설공사를 비롯한 6건의 중대형 전력시설공사가 발주

사업비 규모가 118억원에 달하는 154kV 신진천~성거T/L 건설공사를 비롯한 6건의 중대형 전력시설공사가 발주됐다.

이번에 발주된 공사의 총 사업비는 29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154kV 신진천~성거 및 동천안 T/L 등 2건 공사의 수주향배에 시공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한편 청렴계약 대상인 이들 공사중 154kV 신진천~성거T/L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비 118억3,469여만원(추정금액, 부가세 별도)을 들여 선로 길이 16,086km에 철탑 52기, 전력선 설치 등을 시공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450일이다.

전기공사업체 중 154kV급 복도체 이상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 적격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일 14시에 실시되는 현장설명에 참석해야하며, 입찰참가는 20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6월23일 오전 11시에 마감하며 투찰은 6월24일 오후 3시에 시작해 6월26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 37억7,652여만원이 계상된 154kV 정보S/S 토건공사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570.29㎡의 철골조 변전소를 짓고 이를 위한 고강도 파일 40공, 배수로 전력구 등 토목공사와 기계설비 및 접지공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공기는 450일이다.

입찰참가자격은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제한되며 현장설명은 생략된다.

입찰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투찰은 6월3일 오후 2시에 각각 마감된다.

한전 전남지사가 발주한 무등산 군배전선로 인수 및 송신D/L 보강공사는 사업비 25억2,415여만원(추정금액, 부가세 별도)을 들여 맨홀설치 52개, 관로 및 케이블설치 7.7km, 변압기 설치 4대 등을 시공하는 것으로 공기는 220일이며, 전기공사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며 입찰신청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투찰은 28일 오후 2시에 각각 마감한다.

154kV 영주S/S 1회선 신설공사는 사업비 11억6,296여만원(부가세 별도, 추정금액)을 들여 전주신설 철거, 전선가설, 기기공사, 지중관로 케이블 등 지중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무정전 및 다기능 다선가선공법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체 중 영주 예천 단양 영월 봉화구역에 소재지를 둔 업체로 무정전배전공사 현장적용평가에 합격한 업체로 제한되고 있다.
입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에 마감되었고 투찰은 지난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26일 오전 10시에 마감되었다.
한편 154kV 신진천~동천안T/L 건설공사는 사업비 91억6,855여만원(추정금액, 부가세 별도)을 투입해 선로길이 10.845㎞에 철탑 38기와 전력선 등을 설치 시공하는 것으로 전기공사업체 중 154kV급 복도체 이상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 적격업체로 입찰자격이 제한되며, 입찰참가 신청은 지난 16일 오전 9에 시작해 6월19일 오전 11시에 마감하고 투찰은 6월20일 오후 3시에 시작해 6월23일 오후 3시에 마감한다.

## 765kV 울진-신태백 T/L 3공구 건설공사 입찰

지난해 민원으로 인해 연기됐던 765kV 울진-신태백 송전선로 건설공사 3공구 입찰이 오는 17일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한전의 2단계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발주되는 것으로 지난해 이미 울진 원자력 발전소와 765kV 신태백 변전소간, 총 거리 45.763km 건설 구간 중 1공구(18.286km)와 2공구(10.029km) 총 28.315km 구간이 발주됐으며, 3공구(17.436km)의 경우에는 삼척시 도계읍 및 태백시 지역(3공구 2차 구간)의 민원에 의한 경과지 변경으로 추후 공고키로 하고 연기됐었다.
한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현대건설, 일진건설, 동부건설 등 11개 업체가 3공구 입찰과 관련, 지난달 28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서를 제출했으며, PQ심사는 이미 마무리됐다. 지난 13일에는 현장설명회가 개최됐다.
향후 한전은 다음달 11일 입찰등록서를 마감한 후 17일 입찰을 실시,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정가격 357억2,400만원에 달하는 제3공구에는 철탑 2회선용 31기가 설치되며, 사업에 사용되는 전력선은 ACSR4 80㎟×6B, ACSR 480㎟×4B이고, 공사기간은 착공후 970일간이다.
특히 이번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이번 건설사업은 울진원자력 발전소 5 · 6호기 및 후속호기의 발전전력을 전력수요지지에 원

활하게 수송함으로써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초 입찰을 통해 1공구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대우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이, 2공구는 자유전기-한전기공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된 바 있다.

## 계약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

한전 자재관리처는 최근 물품구매 적격심사 제도 개선, 수의계약 전자 공개 수의계약 시행 등 계약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재관리처에 따르면 물품구매적격심사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이행실적 부분에 대한 과도한 배점 운영으로 우수 신규업체의 입찰참가 진입이 어려웠다며 입찰참가 진입장벽 완화로 덤핑입찰 예방으로 부실납품 사전 예방은 물론 전력기자재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시 이행실적(25), 입찰가격(25)의 적격심사 배점을 이행실적(20), 입찰가격(30)으로 조정하는 한편 예가대비 투찰가능선도 최저 63%에서 최저 71.3%로 조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그 동안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수의계약의 업무처리 투명성 향상 및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 공개 수의계약을 시행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자 공개 수의계약제는 소액 수의 대상인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공사 · 용역(일반건설 1억원, 전문 7000만원, 전기 · 통신 5000만원, 용역 3000만원 이하) · 물품계약에 적용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전자공고 및 낙찰자가 결정된다.

이와함께 공급업체의 간접비용 발생 및 업무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약이행이 장기간이고 공사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중전기기 계약의 사후관리를 공사현장부서(사업소)로 이관하는 계약사후관리 위임을 확대 · 추진하며,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중전기기 계약사후관리 위임 대상품목은 현재 철탑류, 전선류(154kV, 345kV), 방재트러후에서 154kV급 이상 중전기기로 확대된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선급금 지급 요건 완화, 전자입찰 전면 시행, 조달정보 전면 시행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154kV Gas 절연변압기 특성운영기술 설명회

지난 6일 한전 서울전력관리처(처장 심순보)에서는 154kV Gas 절연변압기 특성 및 운영 · 유지보

수에 관한 기술설명회가 이용준 운영실장을 비롯한 관내 건설 · 운영 · 유지보수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전은 도심지 지하변전소의 화재방지 목적으로 지난 90년 23kV 1MVA급 개발에 성공한 이래,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쳐 154kV 60MVA급 Gas 절연변압기 시제품을 국내 기술로 완성한 바 있다. 이 제품은 올해 4월 30일 서울전력관리처 관내 지하 변전소인 154kV 녹번 변전소에 최초로 설치돼 상용운전이 개시된 상태다.

Gas 절연변압기는 탭절환장치가 본체와 완전분리돼 있고, 기존변압기가 절연매체로 절연유를 사용하는데 반해 SF6 Gas를 사용함으로써 절연성능 뿐만 아니라 안전성, 친환경성, 신뢰성 등에서 절연유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본체내부에 대해서는 무보수 무점검을 지향해 개발돼 별도의 점검 없이 상시 가스압력만 철저히 관리하면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서울전력관리처 한 관계자는 "올해 돈암, 서대문 변전소에 연이어 Gas 절연변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동 변압기의 설치 · 운전 · 유지보수 기술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변압기 제작기술진을 초빙, 이날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효성 기술연구소 강사진에 의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Gas 절연 변압기의 특성, 세계적인 기술동향, 운전현황, 핵심기술, 주요부품, 운전 · 유지보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 154KV 연대 복합변전소 건물 준공

154kV 연세대학교 복합변전소 건물 준공 행사가 지난 6일 개최됐다.

강동석 한전 사장, 김우식 연세대학교 총장을 비롯,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준공 행사에서 강 사장은 준공 테이프를 커팅하고 관계자들과 환담했다.

154kV 연세대 복합변전소 건물은 하나의 건물 내에 업무용 사무실 또는 주거용 시설 등과 옥내용 전기함께 건설하는 건축물로 한전은 이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간에 전기공급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이 날 연세대 복합변전소 건물이 준공됨으로써 한전은 이 달 말 준공 예정인 변전소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이 변전소가 준공되면 서울 신촌 주변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됨은 물론, 변전소 설치 부지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한전 심순보 서울전력관리처장은 연세대 복합 건물 건설에 기여한 공로로 김우식 연세대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력기술 로드맵" 공청회

한전 전력연구원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력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전력기술 로드맵 작성' (2002.12~2003.08) 과제의 최종결과물인 전력기술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한다.

가스발전분야는 12일 서울대학교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전력시장 분야는 13일 전력연구원 연구동 1층 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와 함께 대용량 전력수송 분야는 전력연구원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13일에 진행되며 석탄발전 분야는 14일 전력연구원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또 재생에너지 및 연료전지 분야(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부 3층 회의실, 초전도 분야가 내달 5일 전력연구원 연구동 1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 전기硏, 전력기기 성능향상 국산화 지원 '화제'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권영한)의 전기시험연구소(소장 오태규)가 건설한 500MVA급 대전력 연구시험설비가 경인 지역 중전기업체의 신제품 개발은 물론, 국산 중전기기의 기술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화제다.

경기도 의왕시의 전기시험연구소는 지난 2000년 3월 500MVA급 대전력 연구시험설비를 건설 운용한 이래 지난달까지 모두 828건의 대전력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했으며, 지금까지 해외 시험에만 의존해 왔던 3상460V300A100kA급의 대용량 배선용차단기의 국산화연구시험도 실시해 중전기기업체의 제품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국내 중전기기업체의 70% 정도가 경인지역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서, 이들 업체들이 창원까지 제품을 운반해 시험을 받지 않아도 돼, 물류비용과 출장비 등 예산절감에도 크게 도움을 줘 중전기업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시험연구소에 500MVA급 대전력 연구시험설비가 건설되기 전에는 경인지역의 중전기업체들도 경남 창원의 전기연구원 본원의 대전력설비를 이용해 각종 시험을 받음으로써 물류비용과 인건비 등 예산상 많은 부담은 물론 시험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적기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 등을 겪었다.

아울러, 전기시험연구소는 저압용 기중차단기(ACB)와 각종 배선용 차단기의 개발시험을 통해 제작업체들이 겪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제품개발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전기시험연구소는 산업자원부 산하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예산지원을 받아 승림카본금

속(주)과 공동으로 후비보호차단기(63kA)와 투입스위치(80kA)의 접점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이 접점을 500MVA 대전력 연구시험설비에 채택함으로써 수입대체에 따른 외화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기시험연구소는 지난해 베트남 Tuan An Producing & Trading Co,. Ltd사로부터 단로기와 부하개폐기(3상24kV630A25kA)의 해외 시험을 유치하는 등 외화 획득은 물론 대전력 연구시험설비의 해외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기연구원 전기시험연구소는 중전기기 관련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KOLAS)으로서, 지난해에는 진상부하설비 용량증설 및 정밀급 전류센서 설치 등 시험설비를 보완했고, 시험기술의 향상 및 신속한 서비스를 통해 시험결과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핵심설계기술을 확보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다.

## 765KV 신가평 변전소 주변압기 운반

한전 전력계통건설처 동부건설소(소장 안준기)가 건설 중인 765kV 신가평변전소에 설치될 765kV 주변압기가 운반시 가장 큰 난코스로 예상됐던 유명산을 넘어섰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과 가평군 설악면 사이에 위치한 유명산은 국내 패러글라이딩의 메카로 자연휴양림이 있어 가족 산행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지만 해발 862m의 험한 준령으로 165톤의 거대한 주변압기 탱크를 끌어올려 넘기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곳이다.

이번에 유명산을 넘은 주변압기는 울산항 현대중공업 부두를 출발, 마산항과 마산역, 양평역 등을 거쳐 현장으로 수송됐으며 육로 수송구간의 23km 중 7.5km구간이 바로 유명산을 오르고 넘어가는 노선이었다. 하지만 유명산 노선은 평균 슬로프가 9%에 달하고 도로가 구불구불해 운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오르막 경사에서는 볼보사가 만든 FM12라는 420마력급 특수트랙터 3대를 이용, 동시에 변압기를 끌어 유명산을 올라가고 내리막 길에서는 두 대의 트랙터 중 1대가 주변압기를 실은 모듈카를 뒤에서 잡아당겨 제동을 걸면서 내려오는 등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주변압기 운송 대작전을 벌였다.

또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심야시간(밤12시~새벽4시)에 수송을 해야 했으며, 특히 유명산의 급격한 경사로 때문에 현장감독을 비롯한 운송 관계자 모두가 한달여의 운송기간(3월 24일~4월 22일) 내내 밤잠을 설쳐야 했다.

한편,동부건설소는 전체 변전소 건설 공정 중 가장 어려운 작업인 주변압기의 운송이 완료됨으로

써 오는 2004년 9월 가압을 목표로 추진 중인 765kV 신가평변전소 건설공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전기안전공사, 강제인증제도(CCC) 설명회 개최

중국강제인증(CCC)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국규격과 해외인증시험에 관한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엔지니어링사업처 안전인증센터(센터장 염진근)는 지난 9일 '2003 중국강제인증(CCC)제도 설명회' 를 본사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해외규격 인증획득 및 신청절차 안내와 CCC 인증절차, 인증실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용접기와 관련된 중국강제인증제도 절차 및 제품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대훈 엔지니어링사업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CCC제도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3개월 연기됐다" 며 "앞으로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검사와 재해예방 등 법정업무 수행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이 설명회가 기업의 해외시장 공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면서 "앞으로 CCC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30여 명의 업계관계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전선업계, 정부의 HFC망 채택 움직임에 '시무룩'

최근 '광동축혼합(HFC)망' 이 정부의 차세대통합네트워크(NGcN) 기반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선 전선업계는 침울한 분위기다.

그동안 국내 전선업체들은 고부가가치 상품인 광케이블의 특수를 기대하며 NGcN 기반을 위한 정보통신부의 선택이 '광통신망(FTTH)' 쪽으로 기울길 내심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정통부가 최근 FITH에 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신규 투입비가 적게 든다는 등의 이유로 HFC에 무게를 둠에 따라 광케이블에 대한 별다른 수요창출은 일단 기대하기 힘들어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분

석하고 있다.

실제로 HFC망은 이미 국내 전가구의 80% 수준까지 보급돼 있다. 가입자만도 1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HFC용 케이블 시장은 정체돼 있다. 따라서 LG전선 · 대한전선 등 국내 주요 전선업체들은 이미 90년대말부터 HFC용 동축케이블의 생산을 중단, 현재 유통되는 동축케이블은 대부분이 미국 등지서 들여오는 수입산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HFC 채택으로 동축케이블의 신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다해도 국내 동축기술 생산기반이 와해된 마당에 이제와 생산라인을 재가동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HFC망은 방송국에서 원거리(광단국)까지는 '광케이블'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광단국(ONU:Optical Network Unit)에서 가입자까지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따라서 HFC망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가입자가 늘면 광케이블보다는 동축케이블의 신규수요가 많게 된다. 그나마 광장비부터 각 가정 등 최종 수용가까지 동축케이블이 깔리는 거리도 1㎞ 남짓으로 매우 짧다. 특히 HFC망의 광케이블 수요는 FTTH와 비교시 70% 이상 격감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LG전선의 김재호 차장은 "당장 큰 돈 들이지 않고 NGcN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HFC망이 선호될 수 있으나 FTTH에 비해 분명 기술적 한계와 관리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최종 선택을 바란다"고 말했다.

## 배선기구, KS적용 6개월 연기

내년부터 출고되는 '배선용 꽂음접속기(콘센트)'엔 감전예방장치인 접지를 반드시 내장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감전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비접지형 2극 콘센트와 플러그'에 접지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KS 표시인증 심사기준'을 개정,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당초 7월 1일로 잡혔던 시행일을 6개월 연장해 달라는 배선기구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배선기구업계는 이로써 금형변경에 필요한 시간적 ·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배선기구업계는 정부의 KS규격 개정방침과 관련, 콘센트 금형변경비용이 업체당 20억원 안팎에 이른다며 시행일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lectricity

## 변압기, 전선 직납제도 적극 검토

한전이 변압기와 전선을 구입할 때 보급사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운영사업소에 계약업체가 직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전은 변압기와 전선을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변압기의 경우 텝형저손실변압기 등 46종으로 연간 납품금액이 1천214억원에 달하며, 전선은 ACSR 32SQ 등 10종으로 연간 납품금액이 167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현재 이들 품목을 매월 2회 서울자재관리처, 충남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전남지사 등 5개 보급사업소를 통해 납품받아 산하 지점에 보급해 오고 있다.

한전은 이를 바꿔 앞으로는 납품업체가 36개 지점 및 사업소에 직접 공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 자재관리처는 "수송비 절감 차원에서 업계와 함께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말 있을 내년도 단가계약에 개선안을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 직납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생산품을 전국 지점에 직접 납품하면 물류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단가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난연성 전선 사용 확대 추진

전선조합이 전기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난연성 전선 보급 확대에 발벗고 나섰다.

전선조합은 난연성 전선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한전기협회에 제출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공칭단면적 100㎟이 넘는 난연성 케이블에 대한 단체표준규격을 제정, 규격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난연성 전선 및 케이블은 80년대부터 생산 · 시판되어 왔지만 일반 전선보다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선조합은 난연성 전선 및 케이블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판단, 이 같은 규정을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전선조합이 제출한 개정안은 터널, 배전반, 옥내변전소, 암거식 지중선로 등에 난연성 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9월 말까지 개정안을 심의 · 확

정해 10월 중 정부에 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선조합은 또 난연성 전선 및 케이블의 규격을 표준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난연성 전선 및 케이블은 지금까지 공칭단면적이 100㎟ 이하인 전선 · 케이블에 대해서만 한국표준규격(KS) 등으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공칭단면적 100㎟가 넘는 난연성 전선 · 케이블은 특별한 규격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칭단면적 100㎟ 초과 난연성 전선 · 케이블의 성능검증도 업체가 제시한 성적표에만 의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선조합은 지난달 15일 공칭단면적 100㎟가 넘는 난연성 전선 · 케이블에 대한 단체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업계 주도로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전선조합은 앞으로 난연성 전선 · 케이블에 대한 단체표준규격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식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현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거래알선」은 www.koema.or.kr ⇨ "전기산업 동향"에
실시간으로 제공되오니 참조바랍니다.